

로보티즈 (108490)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I)**목표주가 **-원 (I)**현재주가 (8/17) **23,250원**상승여력 **-**

시가총액	2,774억원
총발행주식수	12,187,483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04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475,359주
52주 고	34,600원
52주 저	11,850원
외인지분율	0.74%
주요주주	김병수 외 2 인 33.84%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29.2	18.3	60.3
상대	19.0	23.8	95.9
절대(달러환산)	30.9	15.3	44.2

Step By Step

로봇산업의 성장에 주목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로봇산업은 기술(AI, IoT)의 진화, 사회구조(인구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의 변화, 국내외 정책, 코로나19로 변화된 인식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tep 1. 구체화된 실내 자율주행로봇 '집개미'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 서비스 분야로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정된 위치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기능 위주로 구동되는 제품이다. 반면 동사의 '집개미'는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버튼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통신을 이용한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즉, 중국 제품들과 달리 한대로도 여러 층을 담당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Step 2.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일개미'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일개미'도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 물류업체와 2021년 하반기에 1번째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2번째 PoC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PoC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실외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월)	2018A	2019A	2020A	2021A
매출액	241	227	170	200
영업이익	27	12	-24	-18
지배순이익	28	23	-8	2
PER	61.9	71.7	-170.0	949.9
PBR	3.2	2.6	2.1	2.6
EV/EBITDA	180.8	91.6	71.1	73.7
ROE	5.8	4.2	-1.3	0.3

자료: 유안타증권

Step by Step

로보티즈는 액츄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액츄에이터 사업부 내 주력 제품은 다이나믹셀로 감속기, 제어기, 통신부 등이 하나로 통합된 액츄에이터 모듈이다. 자율주행로봇 제품으로는 집개미, 일개미가 있으며 인공지능 SW를 활용한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로봇산업의 성장에 주목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 및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로봇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은 구분되며 서비스용 로봇은 개인서비스 로봇과 전문서비스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다.

로봇산업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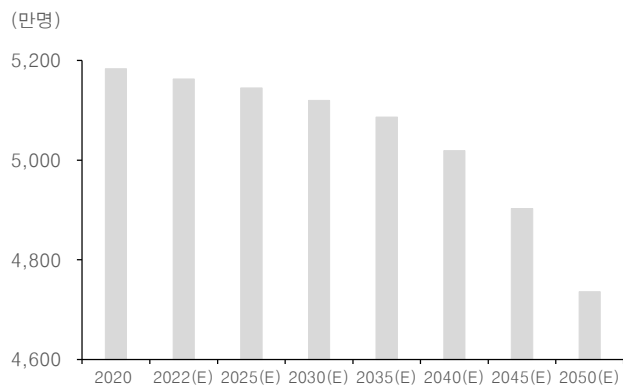
기술적으로는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발달되고 있다. 외부환경 인식 및 상황 판단,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의 성장으로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로봇에서 다수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화 방법을 모색하는 고도화된 로봇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구조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사람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률 둔화에 직결되는 요인이다. 이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대표적이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인구(15~64세)의 비중 역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2011~2021) 최저임금은 1인당 GDP의 성장률(3.7%)과 비교해 볼 때 2배에 가까운 증가율(7.3%)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책으로는 Reshoring 정책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국 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있는 Factory를 자국 내 유치하고 있다.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이 Reshoring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 공장을 배치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중국 등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제조 밸류체인을 자국 내로 유치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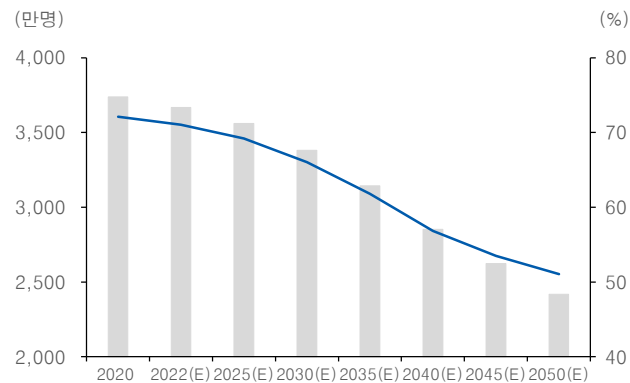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인식 변화 역시 로봇산업에 긍정적이다. 코로나19가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비대면 방식의 생활패턴이 일상화되었다. 마트에 셀프계산대가 설치되었으며, 무인 편의점이 등장했고, 키오스크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산업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한국 인구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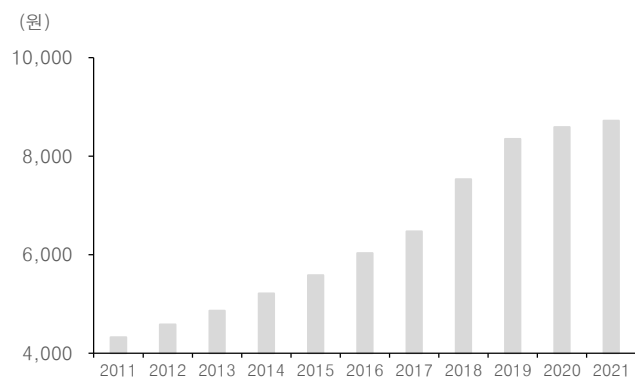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노동인구(만 16~64 세) 및 노동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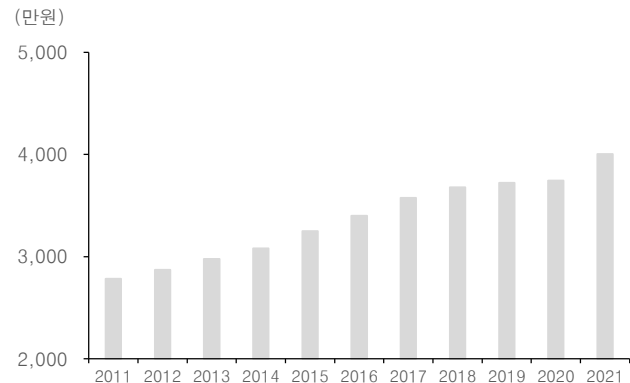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최저임금: CAGR +7.3%(2011~2021)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인당 GDP: CAGR +3.7%(2011~2021)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무인편의점



자료: 이마트 24

셀프계산대



자료: 다이소

최근 삼성전자가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를 무인화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지만, 인력 채용의 불확실성, 인건비 상승 등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성장 동력인 서비스용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도 이어졌다. 올해 5월 8일부터 방송되었던 ‘뜻밖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미국 LA 시내에서 자율주행로봇들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난 6월 18일에는 국무총리가 동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로봇의 규제 개선 추진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은 5.5조원 규모(2020년 기준)이다. 서비스용 로봇은 8,577억원으로 15.6%를 차지했다. 특징적인 점은 시기이다. 서비스용 로봇 관련 매출액은 2015년~2019년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에 큰 폭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장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용 로봇: 삼성전자, 2030년 무인공장 시범 도입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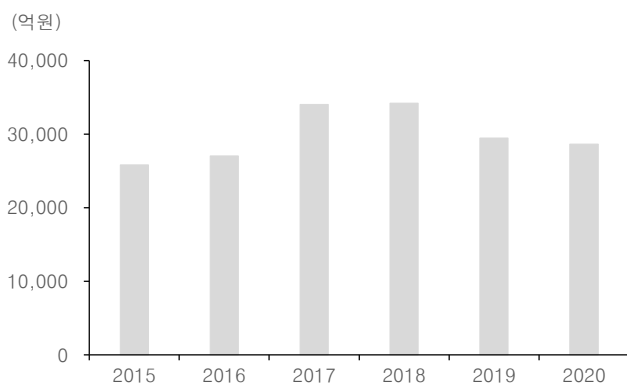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자, 언론보도

서비스용 로봇: LA 시내의 자율주행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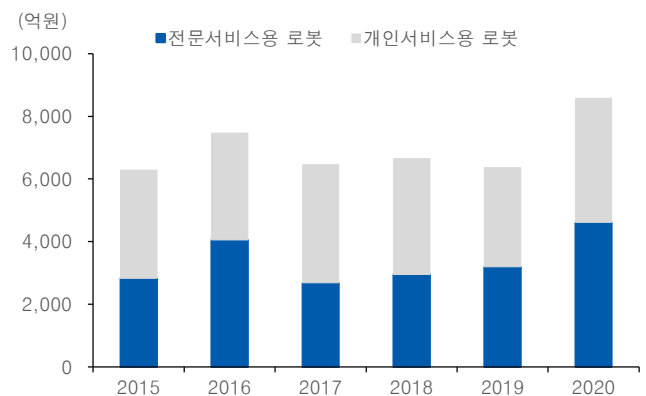
자료: 뜻밖의 여정(tvn, 5/22 일 방송)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에서 서비스 로봇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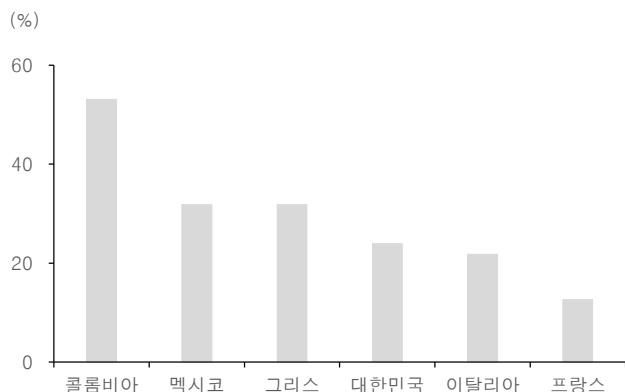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무엇을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위험한 업무, 반복적인 작업을 실수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로봇의 채택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국내 Tech 산업에서 이미 2000년대 이후 로봇 및 자동화 라인을 적용함에 따라 성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서비스용 로봇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국내 서비스용 로봇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도입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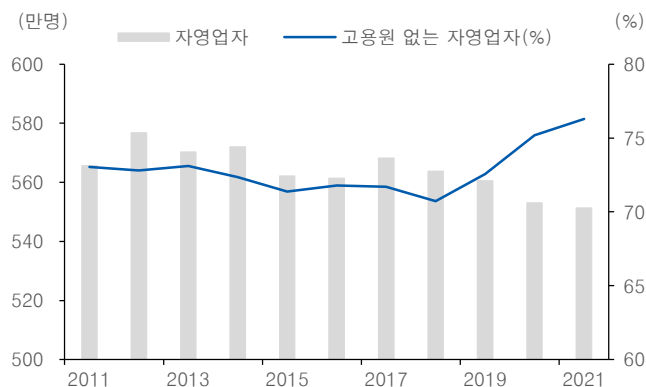
특히 국내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전체 수는 감소되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즉, 로봇 도입의 효용성이 확인된다면 서비스 로봇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영업자 전세계 4위(2021년 발표 기준)



자료: OEC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상승: 2018년 70.7% → 2021년 76.3%



자료: 로보티즈, LG 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tep 1. 구체화된 실내 자율주행로봇 '집개미'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 서비스 분야로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정된 위치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기능 위주로 구동된다. 반면 동사의 집개미는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버튼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통신을 이용한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즉, 중국 제품들과 달리 한대로도 여러 층을 담당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동사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서비스로봇 활용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호텔 명동 헨나호텔에서 시범테스트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를 대상으로 상용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로봇이 수행하여 직원의 단순 업무를 줄여 대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다. 동사는 올해 100대, 2023년 1,000대, 2024년 3,000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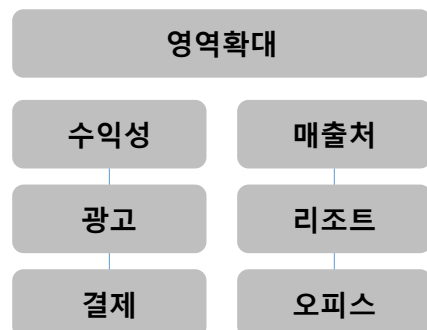
집개미를 통한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첫째, 통신 결제 및 광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집개미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결제가 가능하다. 주문이나 결제화면 내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도 발현될 수 있다. 둘째, 호텔에서 리조트, 오피스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물류 이동 및 운송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경비 등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하다.

로봇팔을 보유한 집개미, 층간 이동이 가능



자료: 로보티즈,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집개미를 통한 영역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tep 2.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일개미’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일개미 준비도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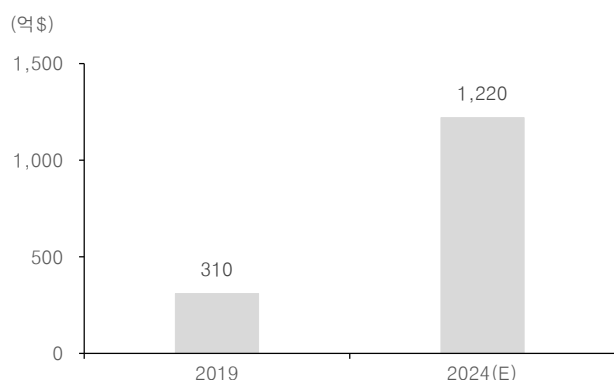
미국 물류업체와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련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 1st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2nd PoC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의 만족스러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1차보다 많은 Option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PoC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실외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았으며, 2020년 3월부터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 스타쉽테크놀로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통해 현재 20여개국에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200m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4월(\$40m), 2022년 1월(\$57m), 2022년 3월(\$100m) 등 총 \$200m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받으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트랙레코드의 증가와 연동되어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투자처가 미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은행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동사 일개미의 해외 진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수록 스타쉽테크놀로지와 유사한 흐름이 기대된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 연평균(2019~2024) 31.5% 성장 전망



자료: 국제로봇연맹, 스트레티지애널리스트,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타쉽테크놀로지의 성장 과정

날짜	내용	날짜	내용
Jul 2014	Company founded	Aug 2019	\$40m in funding
Aug 2014	First Robot prototype created	Aug 2019	100,000 deliveries completed
Jun 2016	5,000km driving	Aug 2020	500,000 deliveries completed
Jan 2017	\$17.2m in funding	Jan 2021	1,000,000 deliveries completed
May 2017	50,000km driving	Oct 2021	2,000,000 deliveries completed
Oct 2017	100,000km driving	Jan 2022	\$57m funding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Invest Bank
Jun 2018	\$25m in funding	Feb 2022	3,000,000 deliveries completed
Apr 2019	50,000 deliveries completed	Mar 2022	\$100m in funding

자료: Starshi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tep 3. 아직 시작되지 않은 LG 전자와의 시너지

LG전자는 CES 2017에서 안내로봇인 LG 클로이를 공개했다. 이후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로이 서브봇, 건물 소독·방역·살균 업무를 하는 UV-C봇, 잔디깎이 및 정원관리 업무를 하는 한국형 잔디깎이 로봇,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봇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6월에 서비스 로봇 솔루션 노하우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Last Mile 배송 전반에 걸친 물류 솔루션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2017년에 로보티즈 지분 인수 등 다수의 로봇 기업들에 투자를 단행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하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LG전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로봇인 안내로봇 및 배송로봇(한화리조트, 레츠런파크, 서울대학교)은 동사의 집개미와, Last Mile 배송은 동사의 일개미와 사업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LG전자와-로보티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로보티즈 집개미 VS. LG 전자 클로이



자료: 로보티즈, LG 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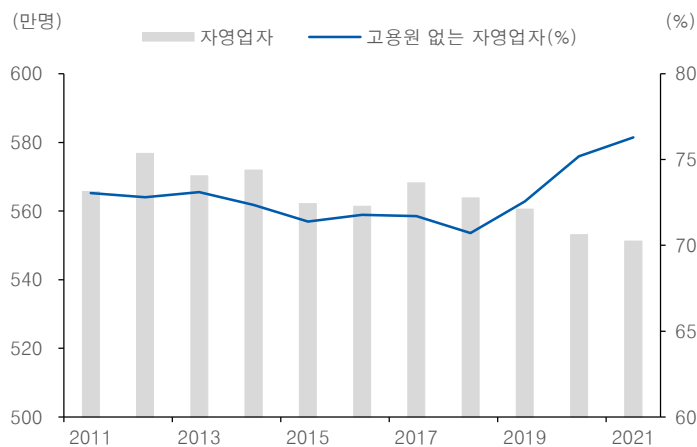
로보티즈 일개미 VS. LG 전자 캐리봇



자료: 로보티즈, LG 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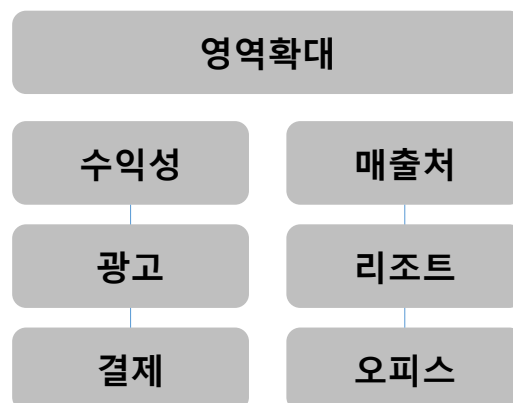
Key Chart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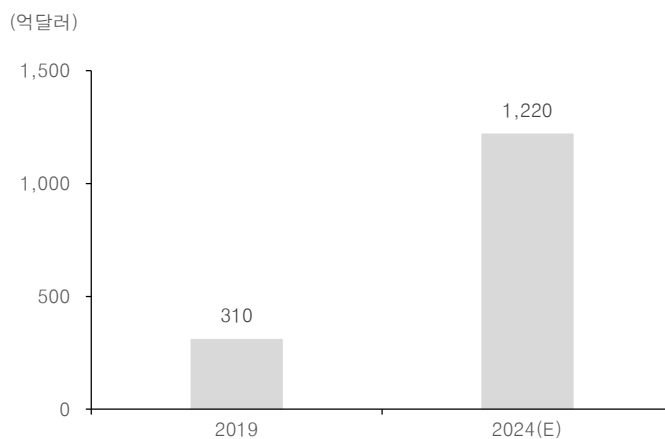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집개미를 통한 영역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로보티즈 (108490) 추정재무제표 (K-IFRS)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매출액	179	241	227	170	200
매출원가	95	129	119	91	107
매출총이익	84	112	108	79	93
판매비	70	85	96	103	111
영업이익	14	27	12	-24	-18
EBITDA	7	10	15	16	19
영업외손익	4	1	9	0	8
외환관련손익	-5	2	4	-4	7
이자손익	0	0	3	2	-5
관계기업관련손익	-1	0	0	0	0
기타	10	-1	2	2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	29	21	-23	-10
법인세비용	0	0	-2	-15	-12
계속사업순이익	18	28	23	-8	2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8	28	23	-8	2
지배지분순이익	18	28	23	-8	2
포괄순이익	18	28	22	-9	2
지배지분포괄이익	18	28	22	-9	2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영업활동 현금흐름	-2	7	43	-6	6
당기순이익	18	28	23	-8	2
감가상각비	6	9	14	14	17
외환손익	2	1	1	5	0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1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16	-36	11	-9	-8
기타현금흐름	-12	5	-6	-9	-5
투자활동 현금흐름	-25	-281	-12	-98	-5
투자자산	-1	-10	-3	0	-7
유형자산 증가 (CAPEX)	64	103	8	23	14
유형자산 감소	34	0	5	0	0
기타현금흐름	-122	-375	-22	-122	-12
재무활동 현금흐름	196	203	-68	104	40
단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및 장기차입금	17	-29	-43	110	0
자본	178	230	0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0	2	-25	-6	40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1	0	-1	-4	1
현금의 증감	168	-72	-38	-4	42
기초 현금	33	201	129	91	87
기말 현금	201	129	91	87	129
NOPLAT	14	27	12	-24	-18
FCF	69	105	46	7	8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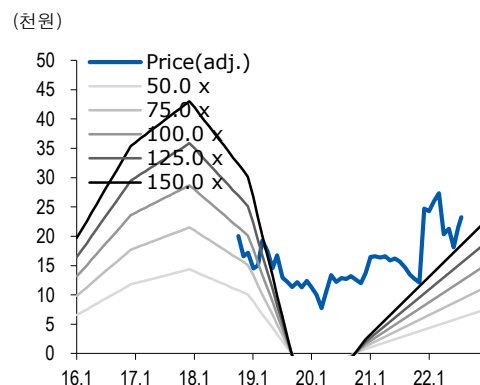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유동자산	289	419	375	428	474
현금및현금성자산	201	129	91	87	12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2	40	27	13	23
재고자산	35	55	57	71	74
비유동자산	171	273	271	299	313
유형자산	158	244	234	244	241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1	12	15	12	19
기타투자자산	0	5	3	15	10
자산총계	459	693	646	727	786
유동부채	34	36	18	9	9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7	13	12	7	10
단기차입금	13	16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1	75
비유동부채	66	36	11	86	8
장기차입금	59	27	0	0	0
사채	0	0	0	78	0
부채총계	100	72	29	95	98
지배지분	359	621	617	631	688
자본금	10	56	56	56	57
자본잉여금	230	413	413	438	461
이익잉여금	120	150	172	162	164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359	621	617	631	688
순차입금	-225	-247	-246	-222	-329
총차입금	72	43	0	79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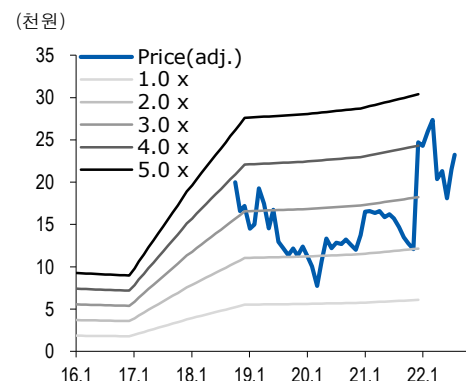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 (월)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EPS	236	287	201	-71	16
BPS	3,782	5,520	5,600	5,742	6,076
EBITDAPS	93	98	133	142	172
SPS	2,376	2,449	2,018	1,512	1,780
DPS	0	0	0	0	0
PER	0.0	61.9	71.7	-170.0	949.9
PBR	0.0	3.2	2.6	2.1	2.6
EV/EBITDA	-32.1	180.8	91.6	71.1	73.7
PSR	0.0	7.2	7.1	8.0	8.8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 (월)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매출액 증가율 (%)	20.5	34.5	-5.8	-25.1	17.7
영업이익 증가율 (%)	1.8	93.0	-57.4	-303.7	-24.7
지배순이익 증가율 (%)	107.8	58.4	-20.0	-135.5	-123.1
매출총이익률 (%)	50.7	46.8	46.5	47.6	46.4
영업이익률 (%)	9.4	7.9	11.4	5.1	-14.0
지배순이익률 (%)	5.8	9.9	11.7	9.9	-4.7
EBITDA 마진 (%)	4.8	3.9	4.0	6.6	9.4
ROIC	8.0	10.2	3.6	-7.3	-5.3
ROA	5.1	6.1	3.8	-1.2	0.3
ROE	7.3	7.7	4.2	-1.3	0.3
부채비율 (%)	27.8	11.5	4.7	15.1	14.3
순차입금/자기자본 (%)	-62.6	-39.8	-39.9	-35.2	-47.8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0.0	42.5	86.2	-87.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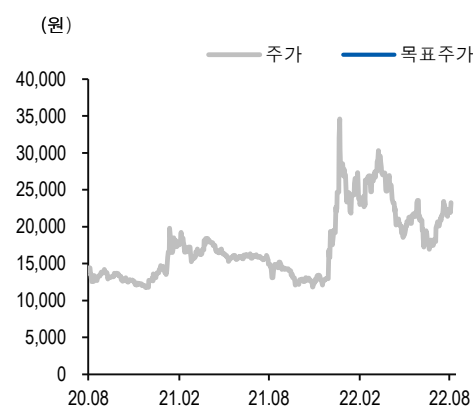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로보티즈 (1084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2-08-1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6
Buy(매수)	93.4
Hold(중립)	6.0
Sell(비중축소)	0.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2-08-15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